

# “임대보증금 일방 인상” 세입자들 뿔났다

### 광양 중마동 송보아파트 4.35% 올라

### 주민들 “협의 없이 ‘막가파’식 인상” 반발

### 건설회사 “법적 문제 없어... 일방적 아냐”

광양시 중마동 송보7차 아파트 857세대 주민들이 송보건설의 임대보증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과 협의 없이 임대보증금(4.35%) 인상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21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난 4월 송보건설은 임대주택

법에 명시된 상한선(5%)에 가까운 임대보증금을 협의 없이 4.35%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 보증금을 인상하려면 주변의 전세가격 변동률과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근거로 세입자와 사전 협의 후 통보해야 하는데, 송보건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임대보증금 미납시 연체료 12%를 물리겠다”며 건설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주민은 또 “입주 3년이 지나도 하자보수는 커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갑’의 부당한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연 1.5% 이상 인상하면 안 된다”며 요구하고 있다.

광양시도 최근 이 아파트 임대조건 변경 인상을 신고에 따른 공문을 통해 ‘송보건설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및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송보건설은 입주민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입차인 대표는 “송보 5차, 6차 주민들과 연대해 ‘막가파’식 인상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 감액청구, 재계약 거절 운동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보건설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아니다”면서 “문제가 생긴 기구에 대해서는 입주 후 매일 5000만원 가량을 들어 하자보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전북 소식



‘광한루연가 춘향’ 공연 모습.

## 남원시, 공연·체험 프로그램 ‘풍성’

### ‘광한루 연가 춘향’ 등 인기

### 국악의 성지 발길도 줄이어

‘문화도시’ 남원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공연은 ‘광한루 연가(戀歌) 춘향’과 ‘신관사포 부임행차’, ‘완월정 풍류이야기’ 등이다.

◇문화예술공연 다양=‘광한루 연가 춘향’은 지난 1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8시에 공연된다. 첫 공연에는 800여명이 관람했다.

특히 8월 1일과 8일에는 여름 휴가차 남원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금요일에 공연을 마련한다.

‘광한루연가 춘향’은 지난해 국악 뮤지컬 ‘가인 춘향’으로 1만5000여 명의 관객을 모은 남원 시립국악단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완성도가 더욱 높다.

‘신관사포 부임행차’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에 사랑의 광장과 광한루원을 오가면서 다양한 즐거움과 해학을 안

겨 주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10월 19일까지 상설 공연된다.

‘완월정 풍류이야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펼쳐진다. 10월 30일까지 계속되는데 7월과 8월은 공연이 없다.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공연되는 풍류이야기는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와 춤을 감상할 수 있다.

◇국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인기=문화예술 공연 외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운봉읍에 위치한 ‘국악의 성지’에서는 매주 화~토요일에 국악체험과 국악기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지리산 둘레길’ 토요 판소리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송흥록 생가 앞에서 공연된다. ‘지리산 둘레길’ 2코스를 걷는 탐방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광한루원 전통 혼례 체험은 10월 25일까지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매주 토요일 11시에 열린다. 춘향 테마파크에서도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전통 마당극 공연과 판소리 배우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섬의 인문학’ 학술대회

### 오늘 목포에서 개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은 22일 목포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섬의 인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섬, 경제활동의 역동성’을 주제로 인간의 경제활동 공간으로서 ‘섬’을 재조명하고, 섬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나타나는 역동성을 통해 소통과 교류의 인문환경을 고찰하게 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19~20세기 제인축제를 통한 임대도 주민들의 경제생활(김경옥 HK교수) ▲천일 염전의 개발과 섬: 지형변화, 이주, 기술전파, 경제활동(최성환 HK교수) ▲글로벌 기후 변화와 어장(홍선기 HK교수) ▲고구마의 이동을 통해 본 16~18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해양인식(김인희 HK연구교수) ▲어업경제의 변화에 따른 마을교 창조(한은선 연구교수) 등 8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완도 농협 마늘 캐기

농협 완도군지부(지부장 김정오)와 완도농협(조합장 정남선) 임직원 120명은 최근 완도를 군외면 갈문리 일원에서 마늘수확 봉사활동을 펼쳤다. 양 농협은 앞으로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 돕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 화순경찰서, 다문화가족 맞춤형 선거교실

### 선거법 교육·모의투표 체험

화순경찰서(서장 이성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화순군 다문화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투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관내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실을 운영했다.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열린 이번 선거교실은 국적을 취득했거나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여성 결혼이민자 45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배운 후 직접 모의 투표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일본 출신 야마다미키(41)씨는 “선거 관련 교육과 모의투표 현장체험을 통해 한국의 선거문화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정읍 농업센터 씨고구마 우량 종순 보급

### 내일 신청 접수 마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 고품질 무병 씨고구마 종순을 보급한다. 1차 보급량은 3만주(보급단가 주당 60원)이다.

고구마 종순은 고구마의 생장점을 무균상태에서 채취해 증식한 후 양액 재배를 통해 플러그 묘(畝) 형태로 생산한 것이다. 품종은 산내 수집종 ‘노랑고구마’와 ‘서든 3호’, ‘연향미’ 등 3개 품종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올해부터 새롭게 보급되는 ‘서든 3호’와 ‘연향미’는 2012년 하반기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을 통해 구입해 생장점 배양을 통해 무병 묘로 증식한 것이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품종비교 재배 및 품질분석 결과 기존 주재배 품종인 ‘노랑 고구마’에 비해 품질과 수량면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라며 “23일까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아 31일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옷 맞춤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두레주류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 두암신협 특별판

### 50억 한시

정기예탁금 1년 **3.1%**

일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암신협

본점: 263-0136 (라바사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